故조양호 한진 회장, 한미재계회의 공로패 수상

한미 양국 경제계 가교 역할 인정받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밴 플리트 상에 이어, 한미 간 관계 발전에 대한 공로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한진그룹은 18일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국과 미국의 재계 교류를 통한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한미재계회의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미재계회의는 우리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양국 간 민간 차원의 최고 경제협력 논의 기구로, 1988년 창설 이래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과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해왔다.

한미재계회의 제 32차 총회가 이달 17일과 18일 이틀간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18일 오전 지난 2013년부터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을 맡아 오다 지난해 4월 작고한 고 조양호 회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한미재계회의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진그룹

이날 총회장에서 조양호 회장 추모영상 상영 후 공로패를 대신 받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한국과 미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기구인 한미재계회의에서 선친의 공로를 인정해 감사하다"며 "선친이 한미 재계 교류와 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일들과 정신을 잘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은 살아 생전 적극적으로 양국 경제계 가교 역할을 수행해 두 나라 간 상생발전과 우호증진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1998년 외환위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27대를 구매한 것은 한미 기업 간 우호 협력의 선례가 됐다. 또 2000년에는 미국 델타항공과 함께 대한항공을 포함한 에어프랑스, 아에로멕시코 등 4개 항공사가 참여한 항공동맹체 스카이팀 출범을 주도했으며, 델타항공과의 오랜 협력을 기반으로 2018년 5월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를 시작해 두 항공사의 동반 성장 기틀을 마련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신한은행-LG-CJ, '마이데이터' 맞손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소비자들의 데이터 주권 행사를 위한 '마이데이터 공동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진옥동 은행장과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가 참석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 동의를 얻어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들을 정보 제공 주체인 고객이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산관리, 소비관리 등 금융 중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넘어 통신, 생활, 유통, 쇼핑 등 다양한 맞춤형 생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각 사의 빅데이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팀을 운영해 사업추진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며, 공동사업의 결과물은 2021년 상반기 파일럿 서비스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지난 17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리 '마이데이터 공동 프로젝트' 협약식에서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가운데)과 LG유플러스 황현식 사장(왼쪽 첫번째), CJ올리브네트웍스 차인혁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오늘의 운세

11월 19일 (음 10월 5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황혼 결혼식도 긍정적으로. **49년생** 삼재이니 건강 기도를 신청해보라. **60년생** 궁지에 몰려 행동의 제약이 생긴다. **72년생**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공할 것. **84년생** 고금 학습의 체계는 드넓은 스승이다.

소 **37년생**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판친다. **49년생** 돈이 사람을 환골탈태(煥骨奪胎)하게 한다. **61년생** 열흘 붉은 꽃이 없으니 운이 왔을 때 열심히. **73년생** 물건을 보면 사고 싶은 마음 쇼핑을 자제. **85년생** 늘 기본에 충실한 것이.

호랑이 **38년생** 대가족 행사로 바쁜 하루. **50년생**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재물도 들어온다. **62년생** 진취적인 행동이 후배에게 교감을. **74년생** 업무 중에 남에게 의심 살만한 일은 자제해야. **86년생** 용기 있는 자 미인을 얻는다고 했다.

토끼 **39년생** 대들보가 무너지면 서까래도 무너진다. **51년생** 인생의 예습은 경험일 것이다. **63년생** 땅에서 밭을 갈고 물에서 고기를 낚는 것이 세상 이치. **75년생** 갑작스러운 초고속 승진 예상이다. **87년생** 열심히 했으나 힘만 든다.

용 **40년생** 한배에 탔으니 힘을 합쳐라. **52년생** 목이 마를 때 우물을 판다면 이미 때는 늦는다. **64년생** 늦은 결혼이나 즐거움이 꽃핀다. **76년생** 오후 되면 신규로 투자할 곳이 생긴다. **88년생** 평소겸손의 공덕은 결국 내게 돌아온다.

뱀 **41년생** 손자의 재주가 비상하니 조상께 감사. **53년생** 산 위에 외로이 비추는 달처럼 감동의 날. **65년생** 업무 일에 무조건 반대하는 이유를 찾아보도록. **77년생** 형들이 있으나 내가 맏이 노릇. **89년생** 어제의 그 남자는 그림의 떡.

말 **42년생** 밖에도 나가고 하자. **54년생** 머리가 가려운데 발꿈치를 긁는다. **66년생** 소를 보고 양을 보지 못한다면 사업의 투자는 신중. **78년생** 내가 아름다워지려면 주변이 아름다운 일들만 가득하길. **90년생** 기억력을 향상해라.

양 **43년생** 자식처럼 키운 조카가 나를 멀리한다. **55년생**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 **67년생** 돈을 못 버니 허수아비 남편이 된다. **79년생** 하나를 알면 몇 가지가 인용되니 기회가 온 듯. **91년생** 분수없는 행동을 자제하는 날.

원숭이 **44년생** 모여서 부모님의 산소재정비를 계획. **56년생** 아직은 젊으니 외모에 신경 쓰면서 기분 좋다. **68년생** 사람은 잘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다. **80년생** 자기 생각을 표현하여 추진하라. **92년생** 일이 미흡해도 전진해야 발전.

닭 **45년생** 새벽에 일어나 글을 읽으니 건강에도 도움. **57년생** 업무에 새로운 관심거리가 생김. **69년생** 본인이 저지른 일은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해결하라. **81년생** 잘못된 투자는 결국 내 손실로. **93년생** 분실수이니 지갑 잘 챙겨야.

개 **46년생** 초년 입신양명이 자식에게도 이어진다. **58년생** 주변에 회색분자(灰色分子)를 경계. **70년생** 선배를 공경하니 업무가 척척 됨. **82년생** 당장은 성과가 없어도 시작해야 좋다. **94년생** 전화금융사기 등의 책략에 걸리지 않도록.

돼지 **47년생** 사소한 일에 성질내는 것을 삼가 보도록. **59년생** 가정을 잘 보살피는 것도 능력. **71년생** 도중하차(途中下車)는 아니 감만 못하다. **83년생** 어떠한 일이건 해낼 수 있는 날. **95년생** 본인재능이 출중하지만 협력해서 해야.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하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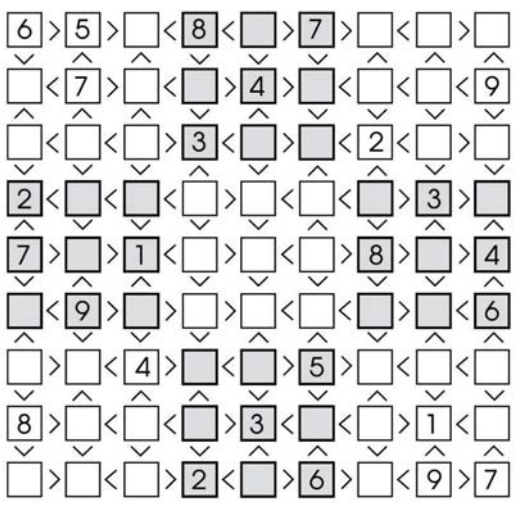
문제출제 :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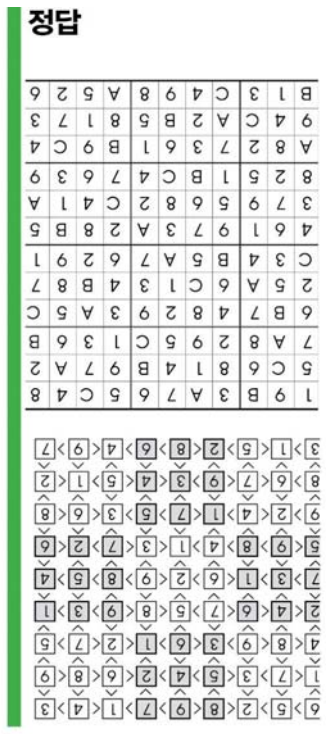
부등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9		3		7	6		C		
	5	C	6		1		B	9		A	2
4	7		8	2		5	C		3	6	B
1	6	B		4		2			A		C
	2	5		6	C	1	3	4		8	7
		3		B		A	7	6	2		1
C		6	1	9	7		A		8		
B	3		9	5	6	8	2		4	1	
A		2			B		4		6	3	9
5	A	8		7	3		1	B		C	4
6	9		C	A		B		8	1	7	
		1		C	4		8		5	2	



BTS Kpop Kings
방탄소년단 케이팝 킹스
헬렌 브라운 저 | a9press | 15,000원

정답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규제의 기회 비용

기자 수첩

안 상 미
〈파이낸스&마켓부〉

한 임차인이 전셋집을 보러 다니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이번 계약 뿐만 아니라 갱신 시에도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해준다는 조건이었다. 자금이 모자란가 했더니 막상 계약 당일에는 대출 하나 없이 한 번에 전셋값을 치뤘다. 계약 직전까지 은행에서 상담을 받은 임차인. 입주하고 몇 달 뒤까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임대인에게 가능한 늦게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도와달라고 당부한다.

용도는 언제 당첨될 지도 모를 청약자금이었다.

서울에서 네 식구가 살만한 집이라면 이제 분양가 9억원 이하는 없다. 중도금 대출이 안되니 소위 '패밀리뱅크(증여)' 신세를 질 수 없는 서민들은 전세자금대출이라도 미리 받아놔야 할 터. 대출금 3억원, 금리는 낮게 2.5%만 잡아도 1년 이자만 750만원이다. 될 지 안될지도 모를 아파트 청약을 위해 매달 60만원 넘게 내야 한다. '청약로또'라는 희망고문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비용이다.

이젠 신용대출이다.

금융당국이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를 예고하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렸다. 금요일에 규제 방안이 나오면서 시중은행의 온라인 창구로 신용대출 수요가 몰렸고,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접속지연 현상까지 나타났다. 한 두달 뒤에 매매잔금을 치뤄야 할 사람 뿐만 아니라 잠재적 매수자까지 '일단 받고 보자'는 분위기다. 대출규모는 전세자금보다 작겠지만 금리는 더 높다. 이들 역시 한 달에 수십 만원씩 쓸데없는 비용을 내게 생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중에 시중 유동성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풀린 돈은 오른 전셋값으로, 잠재 매수 자금으로 장롱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수요과 공급이 아닌 금융으로만 규제를 하다보니 생긴 부작용이다. 금융규제에 나섰다고 가계부채의 질이나 건전성이 좋아진 것도 아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보다 더 위험한 신용대출과 보증대출만 급증했다. /smahn1@

김상회의 四季

결국은 사람

"사람이 재산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인간관계나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이 컴퓨터 기계화된다 해도 인간의 삶이 로봇이 대체하는 고도 IT사회가 된다 해도 결국은 인간의 원초적 노동력이 형태를 달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교하게 로봇화 컴퓨터화가 되더라도 내밀한 인간의 감정 흐름이나 교류는 대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며 코웃음 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깊이와 범위에 있어 슈퍼컴퓨터는 인간의 두뇌가 상상해내는 그 이상의 한계를 넘나들고 있다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최고를 구가하는 세계적 기업에서는 "최고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유지하는 문제가 회사의 장기전략 수립과 미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곤 한다. 기업의 발전을 위한 급선무는 슈퍼컴퓨터의 활용은 도구일 뿐이지 최고급 인재 확보에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은 명리학에 대한 필자의 접근태도와도 부합하는 면이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사주감명이 일반화되어서인지 인터넷의 사이트에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사주팔자에 대한 대운과 세운 십이운성까지도 한 페이지에 확!하고 보인다.

그러나 이건 그저 그림이자 기호일 뿐이다. 물론 그 풀이까지도 인터넷 화면상에 보이긴 하지만 감성의 견해로는 이는 글자의 나열일 뿐이다. 필자의 평생의 학문이 될 사주학도 사람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을 스스로 잘 조감하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역학적 통찰이 의미 있는 것이지 단지 맞추고 틀리고를 감별하는 도구로서의 추구하는 사주팔자학의 의미가 아니라본다. 이는 기계 로직이 아닌 마음의 통찰이 더 요구되는 부분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57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677호